

BOOK REVIEW

서 평

과학으로 푸는 창조론 비밀
진화론과 과학

과학으로 푸는 창조의 비밀

김영길·조덕영 저, 국민일보사, 1994

허성욱

「과학으로 푸는 창조의 비밀」이란 책이 국민일보사에 의해 발간되었다. 평자는 이 책을 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증거”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이 책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창조과학회 회장 김영길 박사와 전임 간사 조덕영 선생 두 분의 공저이기 때문이다.

김영길 박사는 한국 기독교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과학적으로 증거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을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과학자이다. 그가 창조과학을 들고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변증하는 작업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만큼 설득력을 가진 창조론 부흥사는 일찍이 없었다.

공저자 중의 한 사람인 조덕영 전임 간사는 아예 직장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창조과학회로 정해 버린 분이다. 그의 편지글, 전화 목소리 또는 만날 때의 모습에서 창조과학회 회원들 특유의 겸손과 온유(溫柔)를 발견하고 평자는 자주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조덕영 간사. 그는 문학청년기를 거친 문인이면서 동시에 환경공학을 전공한 환경공학 석사이다. 그는 1990년 3월에 발간된 복음만화집 「공룡의 기원, 창조나 진화나」와 국민일보 연재물 등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친숙해진 분이기도 하다.

이 두 분이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명의 기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집필한 「과학으로 푸는 창조의 비밀」은 국판 208쪽 분량, 쉬운 문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김영길, 조덕영 두 분이 말하는 “창조의 비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책을 내면서”에서 두 저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도구가 되어가는 과학”을 안타까워하면서, 먼저 “창조 그 자체와 창조의 원인인 창조주, 그리고 창조의 시기가 있었다”는 확신을 보여 주고 싶어한다. 두 저

자는 물질계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 그 자체도 피조된 대상으로 보고 과학 자료를 창조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조된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탐구할 수록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두 저자는 그 근거를 성경(롬 1:20)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 「과학으로 푸는 창조의 비밀」은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과학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체제를 살펴보면 “창조신앙 왜 중요한가”, “과학, 분명히 창조를 증거한다”, “인류의 기원”, “우주의 신비”, “노아의 홍수는 사실인가”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신앙 왜 중요한가

두 저자는 여기서 그 동안의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을 회고하고 과학을 통한 ‘창조 메시지’ 전파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시대에 새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진화론의 허구성과 정체를 밝히고 진화론이 심각한 위협이자 경고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학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가 가져다 준 가치관의 혼란을 생각하며 과학의 영역에도 기독교 윤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두 저자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끝없는 갱신을 추구하고 창조신앙의 기틀을 굳건히 해야 할 때임을 엄숙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분명히 창조를 증거한다

여기서 과학은 물질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학문이면서 동시에 연구 대상과 방법상 한계를 지닌 학문으로 지칭된다. 즉 만능의 개념이던 과학이 물질문명의 근간이며 부(富)를 창출하는 힘의 원천이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주가 왜 존재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곳에 태어났는가 등의 존재이유나 도덕적 문제 등에 대해 과학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두 저자는 위대한 과학자들의 신적 자연관을 인용하면서 과학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약속된 질서”라고 서슴없이 정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과학 앞에 초연할 수 없고, 과학의 결과에 책임질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두 저자는 과학의 법칙들을 사용하면서 하

나눔이 우주의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만물과 모든 생명의 창조주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기원에 대한 우리 나라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하나의 커다란 성과이다.

교육받은 대다수 시민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진화론만 일방적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잘못 알고 있는 현실에서, 교과서의 기술(記述)상의 문제와 과학적 근거의 해석상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가설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다. 기원에 대한 입장에 따라 각자의 사생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 나라 공교육 정책에 ‘해석론적으로 가능한 두 모델 즉, 창조모델과 진화모델의 공정한 반영’을 바라는 두 저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창조론이 선교의 도구라는 생각은 그 동안의 사역의 결론이자 두 저자의 신앙고백으로 이해되고,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이 진화론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다.

인류의 기원

저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직립보행의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화석상의 증거”는 없으며, 진화론의 해석 기준인 “치아의 배열 형태, 두개골의 용적, 안면의 경사각”도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화석인류들에 대해서는 그 발견경위, 발견자의 주장, 다른 진화론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들을 사려깊게 살펴보면서 진화론자들의 입을 빌려 화석인류에 대한 진화론적 해석을 논파(論破, refutation)하고 있다. 초기의 원인(原人)으로 알려진 라마피테쿠스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랑우탄이었고, 자바 원인은 긴팔원숭이였으며, 북경원인과 하이델베르크인 그리고 크로마뇽인은 완전한 사람, 네안데르탈인은 현생인류인데 비타민 D결핍증 환자인데다, 네브라스카인은 멸종된 멧돼지, 필트다운인은 완전한 조작품이었음을 명쾌하게 파헤쳐 독자로 하여금 진화론의 허구성을 명백하게 깨닫게 하고 있다.

<인류 진화론자 리처드 리키의 최근 견해> 항은 진화론자들의 그 동안의 연구결과가 연대상, 화석해석상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두 저자는 인류 진화론이 마구 얹혀 혼돈스러운 것을 “진화론이 옳다는 전제 아래 잘못된 이론에 연구결과를 맞추어 보려는 인류 진화론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보일 뿐”이라고 하면서, 인류 진화론이 영원히 그 해답 없이 혼

돈 속에 표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모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항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진화론자들의 논쟁이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아담’과 ‘이브’를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아담과 이브로 보면 훌륭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우주의 신비

광대무변한 우주에 관한 오늘날의 지식체계는 워낙 진화론적으로 되어 있다. 우주관이 행성우주, 항성우주, 성운우주의 3단계로 발전되어 오면서, 우주 생성에 관한 견해는 신적 기원관에서 자연적 기원관으로 바뀌어 왔다. 자연적 우주론은 ‘르메트르 - 가모브 - 와인버그’로 연결되는 진화적 우주관과, ‘본디 - 고울드 - 리틀튼 - 호일’의 정상우주론(Steady-State Universe)이 두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그 중 진화적 우주관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폭발이론이다. 이것은 허블이 발견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의 수학적 결과와 깊이 관련해서 나온 이론인 만큼 좀처럼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주 반경 100억 광년을 생각하면 우주 연대 200억 년은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우주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태양계가 약 50억년, 지구를 45억 년으로 상정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우주 진화론의 설득력은 대단하다. 각종 서적뿐만 아니라 TV 기획물로도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진화론에 세뇌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과 과학의 주장을 분리해서 이해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신비>에서 두 저자가 지구 연대와 태양계의 기원에 관한 성운설, 우주 창생에 관한 대폭발이론을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모든 이에게 과학자로서 할 일을 때에 알맞게 수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들은 또 “일부 진화론을 신봉하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의 대폭발이론을 하나님의 창조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타협하려는 경향”을 경고하고 있다. 또, 다른 천체를 만들기 전에 지구부터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진술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영적 관심(요 3:16)이 바로 이 지구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은혜로운 접근이라 생각된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인가

노아의 홍수만큼 많은 공격을 받은 성경 내용은 일찍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가 부정되면 성경의 정확무오성을 충분히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지구 생태계와 지구 모습으로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질문앞에 과학적 방비없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해에는 중학교 방학책에 이 문제가 비과학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이유를 “성경적, 예언적, 과학적” 중요성을 갖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두 저자는, 정통 과학자로서의 과학적 사고와 신앙인으로서의 성경적 사고를 절묘하게 접목시켜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설명을 해내고 있다. 자칫 과학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논제를 과학적 논리로 극복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평자는 독자들이 홍수와 방주에 대하여 현대 과학적인 근거를 사용하여 설명해 내려는 두 저자의 성실성을 쉽게 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자는 이 책이 두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힌대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학은 분명히 창조를 증거함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이유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창조하셨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려는” 집필 의도가 적중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 평을 마치려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6)



■ 허성욱 ■

1951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부산대 및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물리학 전공. 부산 성지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 체육선교신학교 및 부산의대에서 교양물리를 가르치고 있음. 시조시인, 창조과학회 회원이며 저서로 시조시집, 창조론 관계 서적 등이 있고 부산·경남 지역에서 창조론에 관한 다수의 강연을 가짐.